

국어 수량 명사 구문의 통사 구조*

박 호 관**

〈차 례〉

- | | |
|-----------------|---------------|
| 1. 서 론 | 3. 명사소 이동과 제약 |
| 2. 문법 범주와 통사 구조 | 4. 결 론 |

1. 서 론

수량사(quantifier)¹⁾는 어떤 개체들의 수효나 양을 결정하기 위한 표현으로 주로 명사와 결합하여 수식어로 기능한다.²⁾ 이러한 수량사 구문은 수사나 수관형사, '수량'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나 부사 등의 어휘소인 낱말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고, 기능소인 조사나 접미사, 그리고 구절에 의해 실현되는 통사적 범주까지도 포괄하게 된다.³⁾

- (1) 가. 사람마다 꿈이 있다.
 나. 꽃들이 모두 피었다.
 다. 요즘은 비가 너무 잣아.

- (2) 가. 정은이는 [[세 개]의 [[빨간] 사과]]를 먹었다.

* 이 글은 한국어문학회 정례발표회(2003.6.14. 경북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써, 이 날 토론에 참석하여 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친절하게 지적해 주신 박종갑 선생님(영남대)과 이정복 선생님(대구대)께 감사사를 드린다.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 분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이 글에서는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들과 오류는 오직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1) '수량사, 셈술화, 양화사, 셈말' 등의 용어로 쓰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수량사'로 쓴다.
 2) 김광해(1990: 311), 참조.
 3) 김영희(1976, 1984) 참조.

[*세 개 (빨간) 사과 / *(빨간) 사과 세 개]

나. [두 사람]이 각각 [책 [세 권]]을 읽었다.

[*사람 두 / *세 권 책]

다. 정은이는 [[(빨간) 사과] 셋]을 먹었다.

[*세 개의 (빨간) 사과 / *(빨간) 사과 세 개]

(1가)는 보조사, (1나)는 접사나 부사, (1다)는 형용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수량 표현들이다. 그러나 (2가)는 ‘수관형사 + 분류사’⁴⁾ + {-의} + 명사(구)의 명사구 구성으로 실현되고, (2나)는 ‘수관형사 + 명사’ 또는 ‘명사 + 수관형사 + 분류사’로 실현되며, (2다)는 ‘명사(구) + 수사’의 구성으로 실현되는 예들이다. 이와 같이 ‘수관형사, 수관형사 + 분류사, 수사’가 명사(구)와 결합하여 생성되는 구문을 ‘수량 명사 구문’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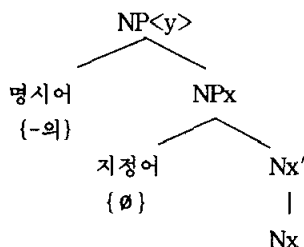
국어 수량 명사 구문에 대한 논의로서는 양인석(1972), 이익섭(1973), 노대규(1977), 김영희(1981, 1982, 1984), 채완(1982, 1983), 유동준(1983), 김영근(1991, 2000), 김지홍(1994) 등이 있다. 양인석(1972)은 국어의 수량 명사 구문이 기저의 절로부터 유도되는 것이라는 당시 변형생성문법의 관점에서 수량 명사 구문을 이중주어문의 한 유형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익섭(1973)은 이러한 변형생성 문법적 설명을 비판하고, 수량사와 분류사는 명사와 위치 변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노대규(1977), 김영희(1981), 채완(1983) 등도 이러한 이익섭(1973)의 발전적 논의들이다.

특히, 국어 수량 명사 구문의 문법 범주 설정과 통사 구조에 대한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은 김영희(1984)와 김지홍(1994)을 들 수 있다. 김영희(1984)에서는 수량 명사 구문이 부정법과 공기하면 중의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량사와 분류사로 구성되는 한국어 수량사 구문을 문장의 변형으로 생성된 관계화의 서술기능으로 분석하여 그 문법 범주를 서술어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지홍(1994)에서는 표층구조로 실현되는,

4) 이 논문에서는 ‘수량 단위성 의존명사’를 ‘분류사’라는 용어로,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와 ‘수관형사’를 ‘수량사’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수량사를 포함하는 구성의 통사 구조를 [외부지정어 [내부지정어 [보충어 [핵어]]]]로 설정하였으며, 이 구조에서 핵성분은 기능 범주 D인 ‘분류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명사 + 수량사 + 분류사’, ‘명사 + 수량사’ 구문들과 ‘수량사 + 명사’, ‘수량사 + 분류사 + {-의} + 명사’ 구문에서 분류사가 핵어에 외현적으로 실현되는 것과 공범주 형태로 실현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모두 성분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3) 명사구 이중 구조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김영희(1984)나 김지홍(1994)와는 달리 박호관(2001, 2002)에서 제시한 바 있는 (3)과 같은 우리말의 일반적 명사구 구조인 ‘명사구의 이중구조’를 전제로 수량사 구문이 명사와 통합한 ‘수량 명사 구문’을 명사구의 한 유형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통사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즉 ‘수관형사, 분류사, 수사, 명사’ 등이 서로 결합하여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수량 명사 구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국어 수량 명사 구문의 문법 범주 설정과 통사 구조를 분석하고, 이 구조에 따른 명시소 이동과 제약에 대한 문법적 특징을 다루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문법 범주와 통사 구조

형태론적 합성어의 생성은 같은 자격의 어휘 범주들의 결합, 즉 낱말 X와 Y의 결합으로 ‘XY’의 새로운 낱말이 생성된다. 그러나 ‘*세 명 사람’은 형태론적 합성어의 생성이 아니라 통사적 투영과 관련된 핵명사

‘사람(N)’와 명사구(NP)인 ‘세 명’의 통합으로 구성된 통사적 구문의 합성이다. 이 구문이 비문법적인 것은 통사적 구문의 확장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며,⁵⁾ ‘*셋 사과’가 비문법적인 것은 수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합성어 생성조건을 어겼기⁶⁾ 때문이다.

그리고 통사적 구문의 확장은 X'에 의해서 선행요소가 선택되어 생성된다. 즉 ‘사과 셋’은 외현적으로는 ‘명사 + 수사’의 구성이지만 N'인 핵성분 ‘셋’과 선행명사(N) ‘사과’는 서로 ‘[대상-개체]’의 의미관계에 따른 통사적 구문의 확장이기 때문에 무표적 속격 명사구로 문법적이다. 이와 같은 통사적 구문의 확장은 어휘범주 항목들의 투영인 핵성분의 향가에 따른 논항 구조로 확장된다. 즉 문장의 생성이 동사의 향가에 따라 선행 명사구들을 선택하듯이, 명사구들도 핵명사의 의미 투영에 따라 계기적이며, 계층적으로 선행요소들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4) 가. 소현이가 [[(빨간) 사과] [세 개]]를 먹었다.

나. 소현이가 [[(빨간) 사과] [셋]]을 먹었다.

(5) 가. [[(예쁜) [세 학생]]이 결석했다.

나. [세 명의 [[(예쁜) 학생]]이 결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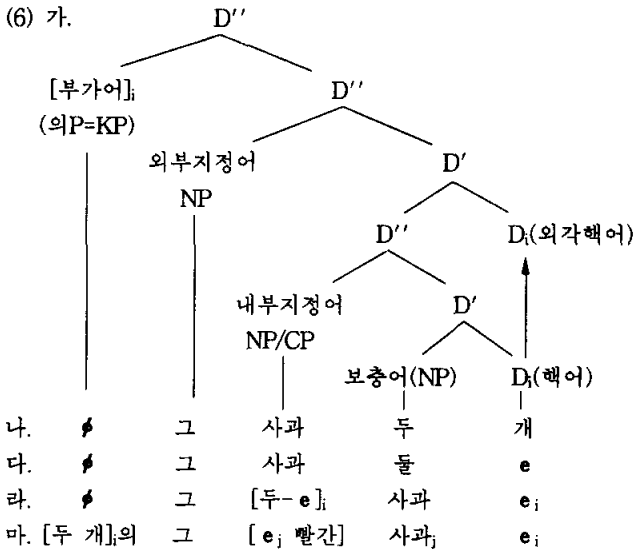
국어 수량 명사 구문의 외현적 실현은 (4)나 (5)와 같이 ‘명사 + 수량사 + 분류사’, ‘명사 + 수량사’ 또는 ‘수량사 + 명사’, ‘수량사 + 분류사 + {-의} + 명사’ 구문인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2.1 수량 명사 구문의 문법 범주

김지홍(1994: 45)에서는 (4), (5)와 같은 수량 명사 구문의 통사 구조를 모두 동일한 구조인 ‘[부가어] [외부지정어 [내부지정어 [보충어 [핵어]]]]’로 나타내고 있다. 이때 핵성분은 기능 범주인 분류사(D)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통사 구조를 (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5) 통사적 층위의 구문 확장은 핵성분 X'의 자매항에 어휘 Y가 선택되어 통합되거나 구문 ZP가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우리말에서는 ‘수사+명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어를 생성하는 경우는 없다.



김지홍은 (6가)의 구조를 바탕으로 (6나)에서는 분류사 ‘개’가 핵성분이며 각각 그 보충어와 내부지정어에 ‘두’와 ‘사과’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6다)에서는 DP의 핵성분으로 공범주를 설정하고, (6라)에서는 기저에 수량사 ‘두’를 DP의 핵성분으로 설정했다가 다시 D’의 내부지정어 위치로 이동시킨 구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6마)에서는 D’(보충어와 핵어)를 부가어 위치로 이동시켜 속격 명사구를 실현한다고 했으며, 모든 명사에는 기능 범주 D가 초기값으로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능 범주의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이러한 기능 범주의 핵어는 모두 외각 핵어로의 핵이동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설명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6다)에서 공범주를 핵성분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외현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공범주가 명사구의 핵성분이라는 근거가 약하며, 이는 항가를 부여하는 주체가 없이 수량사 ‘둘’을 보충어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이나 ‘노력’과 같은 추상

명사들은 '*사랑 세 개 / *세 개의 사랑 / *세 사랑'이나 '*노력 세 개 / *세 개의 노력 / *세 노력' 등과 같이 분류사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분류사가 명사구의 핵심분이 될 수는 없다.

둘째, (6라)에서는 만약 명사구의 핵심분인 분류사가 공범주(예)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6나), (6다)의 '사과'는 '내부지정어'에 선택되고, (6라), (6마)의 '사과'는 '보충어'에 선택되는 것은 핵심분이 동일한 통사 구조에서 서로 다른 층위에 '사과'가 실현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류사는 일반적 명사구의 핵심분이 될 수는 없다. 또 채완(1990)에서는 '물 하나'가 '물 한 방울/잔/병/통/동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양화 표현에서는 분류사의 선택이 화용적이라고 했다.⁷⁾ 이러한 설명이 올바른 것이라면, 화용적 상황에 따라 핵심분이 바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6마)에서 부가어는 수의적 첨가어인데, DP의 핵심분인 분류사(D)가 부가어로 이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만약 이동하더라도 핵심분이 수의적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4), (5), (6)의 구문들은 DP가 아니라 NP이며, 이들 구문의 핵심분은 분류사(D)가 아니라 명사(N)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영희(1984: 35~50)에서는 동사형 수량사가 서술기능을 하는 서술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명사를 중심으로 한 명사형 수량사와 관형형 수량사들의 통사범주도 이들의 위치 변이에 관계없이 모두 서술어임을 규명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예문을 들면 (7)과 같다.⁸⁾

- (7) 가. [두 맞수]가 팽팽히 버티고 있다.
 나. [대역석의 장정]이 앞을 막아섰다.
 다. [상당한 재산]이 그들에게 돌아갔다.

(7가)는 수량사가 '관형사'이고, (7나)는 '명사형 + {-의}'이며, (7다)는

7) 채 완(1990: 172) 참조.

8) 김영희(1984: 45), 예문 (64) 참조.

‘동사형 + {-ㄴ}’인 일반 동사와 같은 용언의 어간에 관형형 어미 ‘-ㄴ’이 붙은 관계관형절 구성이다. (7다)의 용언 ‘상당한’은 ‘재산이 상당하다’의 관계관형절의 변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술어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7가)와 (7나)의 기저 구조도 각각 ‘맞수가 둘이다’ 구문과 ‘장정이 대여섯이다’ 구문의 변형으로 그 통사범주는 모두 서술어임을 논증하고 있다.⁹⁾

(8) 가 a. 맞수가 둘이다.

b. *돌인 맞수

c. *둘의 맞수 / 두 맞수

나 a. 재산이 상당하다.

b. 상당한 재산 / *상당은 재산

c. *상당의 재산 / *상당 재산

그러나 (8가)에서 ‘맞수’의 서술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수량사 ‘둘’이 아니라 ‘-이(다)’이다. 그리고 (8가a)의 관계관형화는 (8가b)이며, 이것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은 관계관형화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또 (8나)에서 서술어 ‘상당하다’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상당 + 하- + -ㄴ’으로 나타나며, 이때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명사 ‘상당’임을 알 수 있다. 즉 수량사의 통사기능이 서술기능이 아니라 기능동사 ‘하(다)’의 통사기능이 서술기능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수량사가 서술기능을 가지는 서술어라고 하더라도 (8나c)가 비문법적임은 설명할 길이 없다.

(9) 정은이가 학생이다.

가. 학생인 정은이

나. *학생의 정은이

다. *학생 정은이(cf. 정은이 학생)

또 명사구문 (9)와 같은 예에서도 (9가)와 같은 방법으로 ‘-이(다)’ 구문의 관계관형화는 실현되지만 (9나)나 (9다)와 같은 속격 명사 구문으

9) 김영희(1984: 47), 예문 (71) 참조.

로 실현되면 비문법적이다. 따라서 수량 명사 구문의 수량사가 비록 서술기능을 할지라도 그 문법 범주는 서술어가 아니다.¹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에서 제시한 (4)와 (5)의 수량 명사 구문이 비록 서술기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법 범주는 ‘명사구’로 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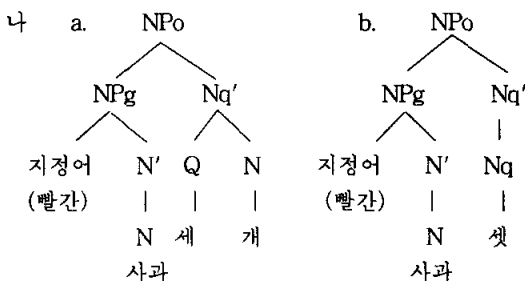
2.2 수량 명사 구문의 통사 구조

2.2.1 ‘명사 + {수량사 + (분류사)}’ 구문

앞에서 제시한 (4가)는 ‘명사 + {수량사 + 분류사}’로 실현된 수량 명사 구문이며, (4나)는 ‘명사 + 수량사’로 실현된 것이다. 이를 (3)에서 제시한 ‘명사구 이중구조’에 따라 구조화하면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가 a. 소현이가 [[([빨간] 사과]_{NPg} [세 개]_{Nq'}]_{NPo}]를 먹었다.

b. 소현이가 [[([빨간] 사과]_{NPg} [셋]_{Nq'}]_{NPo}]를 먹었다.



(10a)에서 분류사(의존명사) ‘개’는 수량사(수관형사) ‘세’의 수식을 받아 수량사구 Nq’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Nq’의 통사적 확장인 논항 구조에 따라 Nq’의 지정어 위치에 무표적 속격 명사구(NPg)의 핵성분인 ‘사과’를 선택하고, 이 ‘사과’를 다시 핵성분으로 하여 관계관형절 ‘빨간’을 선택한다. 한편 (10b)에서는 수량사(수사) ‘셋’이 체언이므로 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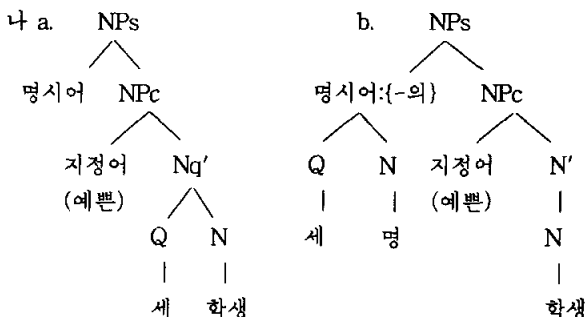
10) ‘소현이의 민요 연구’와 같은 서술성 명사 ‘연구’를 핵성분으로 하는 속격 명사구에 서도 핵명사가 서술기능을 하지만 그 문법 범주는 명사구(NP)이다.

성을 가진 명사(N)로 볼 수 있다.¹¹⁾ 하나의 낱말이 통사 구조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Nx'가 되어야 하며, 이 Nq'의 통사적 확장으로 Nq'의 지정어 위치에 무표적 속격 명사구(NPg)인 '(빨간) 사과'를 선택한다. (10)의 NPo에서, Nq는 '수량 명사구(문)'을 나타내며, 'o'는 상위문 동사의 항가에 따른 문장성분(목적어)을 표지한다. 따라서 (10a)와 (10b)의 통사 구조와 의미 기능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상위문 동사 '먹(다)'의 항가에 따른 논항 구조로써 목적어 위치에 수량 명사 구문이 선택되며, 이때의 문법 범주는 모두 '명사구'이다.

2.2.2 '{수량사 + (분류사)} + {-의} + 명사' 구문

(5가)는 '{수량사 + 분류사} + {-의} + 명사'로 실현된 수량 명사 구문이며, (5나)는 '수량사 + 명사'로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구성도 (3)에서 제시한 '명사구 이중구조'에 따라 재구성하면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1) 가 a. [(예쁜) [세 학생]_{Nq'}]_{NPs}이 결석했다.¹²⁾
 b. [[[세 명]_{Nq'}의]_{NPg} [(예쁜) [학생]_{N'}]_{NPs}이 결석했다.



(11a)에서 핵명사 '학생'은 (10a)의 분류사(의존명사) '개'와 같이 수량사(수관형사) '세'의 수식을 받아 Nq'(세 학생)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11) 여기서 명사(N)란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괄하는 '체언'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12) 예문 (11가a)의 '세 학생'은 자연스러우나, '??세 사과'가 청자에 따라 비문법적, 또는 기이하게 생각되는 것은 통사적 층위의 문제가 아니라 핵명사 '학생'과 '사과'의 어휘 의미적 차이로 생각된다.(??정은이가 [[빨간] [세 사과]_{Nq'}]_{NPs}를 먹었다.)

이 Nq'의 통사적 확장으로 지정어 위치에 관계관형절 '(예쁜)'을 선택한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1b)에서는 핵명사 '학생'의 지정어 위치, 즉 N'의 자매항에 관계관형절 '(예쁜)'이 선택되어 관계관형절 NPc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핵명사 N'의 명시어 위치에 유표적 속격 명사구 '세 개의'를 선택한 구조로 상위문 동사 '결석하(다)'의 목적어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1a)와 (11b)는 서로 통사 구조적 층위는 다르지만 이때의 문법 범주는 모두 '명사구'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 명시소 이동과 제약

3.1 '어휘적 재구조화'와 '통사적 구문확장'

지금까지의 논의는 '명사 + 수량사(구)'인 '[사과 [셋]]', '[사과 [세 개]]'나 '수량사 + 명사(구)'인 '[[세 개]의 [사과]]', '[세 사과]'가 모두 상위문 동사의 항가에 따라 논항 구조로 선택된 명사구임을 설명했다.

(12) 가. 소현이는 [사과 [셋]]을 먹었다.

나. 소현이는 [사과 [세 개]]를 먹었다.

위의 예문 (12가)와 (12나)의 문법 범주는 명사구로 서로 동일하며, 언어 기능에 따른 의미도 서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동일하다면 이들의 통사 구조도 또한 같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10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q'의 하위구조만 다를 뿐 이들의 통사 구조는 서로 동일하다. 즉 X'가 통사 구조에 관여한다면 그 하위 층위의 확장은 어휘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관형사 '세'와 의존명사 '개'는 같은 층위의 어휘적 재구조화로 볼 수 있다.¹³⁾ '어휘적 재구조화'는 통사론적 층위의 확장이 아니기 때문에 (12가)와 (12나)는 동의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 '수관형사 + 의존명사'의 통합이 어휘적 재구조화라고 한다면 '수관형사 + 명사'도 어휘적 재구조화로 설명할

13) 김지홍(1994: 29)에서도 '수량사'와 '분류사'는 하나의 요소로 융합되어 있다고 했으며, 이를 '융합수량사'라 부르고 있다.

수 있다.¹⁴⁾ 결국 핵명사에 관형사가 선택된 ‘세 학생’, ‘?세 사과’는 ‘관형사 + 명사’의 구조로 ‘세 명의 학생’, ‘세 개의 사과’나 ‘학생 세 명’, ‘사과 세 개’와는 다른 층위의 구성체이다.

(13) 가. [[빨간 사과]_{NP_g} [세 개]_{N_g'}]_{NPs}가 상했다.

나. 소현이는 [[빨간 사과]_{NP_g} [세 개]_{N_g'}]_{NP_o}를 먹었다.

(14) 가. [[빨간 사과]_{iSPEC}는 [e_i 세 개]_{N_g'}]_{NPs}가 상했다.

나. 소현이는 [[빨간 사과]_{iSPEC}를 [e_i 세 개]_{N_g'}]_{NP_o}를 먹었다.

그러나 (13)에서는 핵성분 ‘세 개’의 내적 보충어인 지정어 위치에 ‘(빨간) 사과’를 선택한 무표적 속격 명사구를 구성하고 있고, (14)의 예문들은 소위 ‘격중출 구문’들으로써 (13가)의 ‘빨간 사과’는 (14가)와 같이 이중 주어구문을 이루고 있으며, (13나)의 ‘빨간 사과’는 (14나)와 같이 이중 목적어구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14)의 구문들은 ‘어휘적 재구조화’에 따른 변형이 아니라 통사적 구문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모두 핵명사의 지배영역에서 상위문 동사의 지배영역으로 이동한 ‘명시소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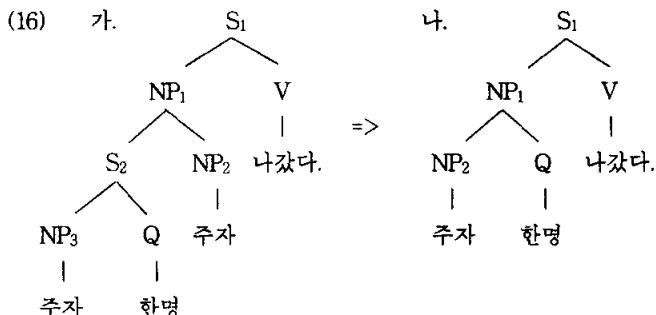
3.2 수량 명사 구문의 명시소 이동과 제약

김영희(1982: 45)에서 제시한 예문 (15)와 통사 구조 (16)을 보자.

(15) 가. [한 명의 주자]가 나갔다.

나. [주자 한 명]이 나갔다.

14) 이 논문에서는 관형사의 통사 구조상 위치는 핵명사의 어휘적 재구조화로 보고 부가어로 처리한다. 줄고(1995: 30~33)에서는 관형사를 핵명사의 [개념성]에 대한 [지시성]과 [한정성]의 의미특성에 따른 정도성 자질로 설명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핵명사의 선행요소인 관형사의 의미구조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 과제로 남긴다.



김영희(1976, 1982)에서는 (15)의 기저구조로 (16가)를 설정하고, (16가)에 동일명사구 삭제규칙을 적용한 다음 관계관형절 서술어인 수량사구를 ‘셈술말 뒤치기(quantifier postposing)’로써 핵명사인 NP₂의 자매항으로 옮기면 (16나), 즉 (15나)의 별임 셈술말 문장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15)의 기저구조는 (16가)에서 NP₂의 선행요소가 관계관형절이라면 ‘한 명인 주자’와 같이 관형형 어미는 부여할 수 있으나, (15가)와 같이 ‘한 명의 주자’처럼 속격 표지 {-의}를 부여할 수는 없다. 즉 2.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NP₂의 선행요소는 ‘서술절’이 아니라 핵명사에 선행하는 속격 명사구이다.

그리고 ‘동일명사구 삭제규칙’이나 ‘셈술말 뒤치기’도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다. 가령 (16가)의 Q가 상위구조 NP₂의 뒤로 이동한다면 어느 위치에 어떤 환경에서 이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만약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16가)와 (16나)는 서로 다른 통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 생성된 문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주자 한명’과 ‘한 명의 주자’는 각각 핵명사(N’) ‘한 명’과 ‘주자’의 논항 구조에 따라 생성되는 무표적 속격 명사구와 유표적 속격 명사구로 설명할 수 있다.

3.2.1 격중출 구문: [핵명사(N')의 지정어 → 동사(Vx')의 명시어]

국어 문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격 중출 구문이다. 이 가운데 수량사구를 포함하는 주격 중출 구문과 목적격 중출 구문에 대하여 김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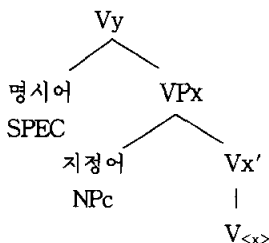
(1982: 51, 1984: 157)는 ‘기능 도르기(function distribution)’라 하여 (17)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7) 기능 도르기

X - [NP - NP/Q] _{NP} - CM - Y					
1	2	3	4	5	6
=> 1	2+5	3+5	0	0	6

(17)은 속격 명사 구문에서 핵명사 선행요소를 상위문 동사의 지배영역으로 떼어내는 통사론적 절차라 할 수 있다. 가령, ‘[소현이의 손]_{NPs}이 예쁘다. → [소현이]_{NPs}가 [손]_{NPs}이 예쁘다.’나 ‘정은이가 [사과 [세 개]]_{NPs}를 먹었다. → 정은이가 [사과]_{NPs}를 [세 개]_{NPs}를 먹었다.’와 같은 문장들의 변형 절차라 할 수 있으며, 국어 수량 명사 구문에서도 이와 같은 변형 절차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이 일어나는 원인을 ‘주제화’¹⁵⁾나 ‘초점화’¹⁶⁾ 등의 의미·화용적 설명만 있을 뿐이며, 통사 구조 내에서 이동의 시작과 착지에 대한 설명과 이동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미흡하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서 국어 명제문의 통사 구조도 ‘명사구의 이중 구조’와 동일하게 ‘명제문의 이중 구조’로 설정한다면 이러한 명사구 이동의 시작과 착지뿐만 아니라 이동의 원인에 대한 의미 기능도 명제문의 이중 구조 안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8) 명제문의 이중 구조



15) 임흥빈(1972, 1974) 참조.

16) 김귀화(1988, 1994) 참조.

(18)의 구조에서, $V<x>$ 는 명제문의 핵심분인 동사의 향가를 나타낸 것이고 Vx' 는 통사적 투영으로 '지정어'와 '명시어'를 선택하여 다른 층위(V_y)로 확장되는 동사구 확장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즉 타동사 구문인 경우에 $V<x>$ 는 목적어와 주어를 요구하는 2항 술어로 $V<s, o>$ 가 될 것이며, Vo' 의 통사적 투영으로 지정어를 선택하게 되어 VP_o 로 확장되고, 이 VP_o 의 좌분지점에 명시어를 선택함으로써 $V<o>$ 의 확장은 끝난다. 그리고 $V<s>$ 의 의미 자질에 따라 Vs' 의 통사적 투영으로 주어인 지정어와 명시어를 선택하여 하나의 명제문이 생성되는 원리이다.

이러한 구조에 기댄다면 (19)와 같은 수량 명사 구문의 주격 중출 구문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 가. [[빨간 사과] $_{NP_g}$ [세 개] $_{Nq'}$] $_{NP_s}$ 가 상했다.

나. [빨간 사과] $_{iSPEC}$ 는 [[e_i [세 개] $_{Nq'}$] $_{NP_c}$] $_{NP_s}$ 가 상하] $_{Vs'}$ 였다.

(20) 가. [[[세 개] $_{NP_q}$ 의] $_{iSPEC}$ [빨간 사과] $_{NP_c}$] $_{NP_s}$ 가 상했다.

나. [빨간] $_{iSPEC}$ [[[세 개] $_{NP_q}$ 의] $_{iSPEC}$ [e_i [사과] $_{Nc'}$] $_{NP_c}$] $_{NP_s}$ 가 상하] $_{Vs'}$ 였다.

다. *[세 개] $_{iSPEC}$ 는 [[e_i [빨간 사과] $_{NP_c}$] $_{NP_s}$ 가 상하] $_{Vs'}$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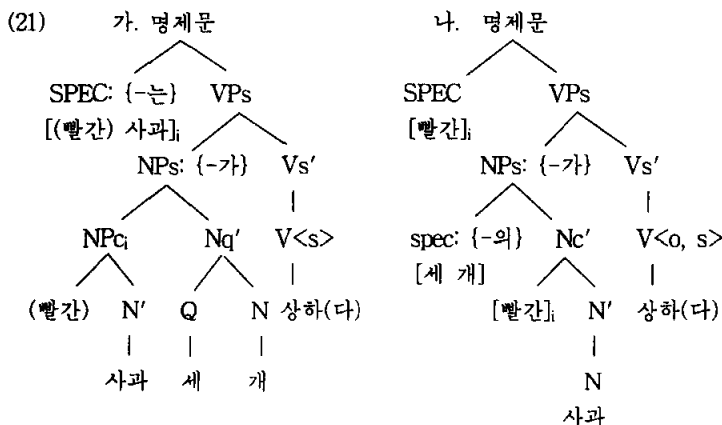
(19가)는 동사 '상하(다)'의 [+대상]으로 어휘적 재구조화를 경험한 수량사구 '세 개'가 선택되어 명사구의 핵심분을 이루며, 이 핵심분은 명제문의 핵심분인 동사 '상하(다)'의 향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어 위치에 무표적 속격 명사구 '빨간 사과'를 선택한 구문으로 '빨간 사과 세 개'가 동사 '상하(다)'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19나)는 (19가)의 핵명사 선행요소인 '빨간 사과'가 명제문의 핵심분인 Vs' 의 명시어(SPEC) 위치로 이동하여 '이중주어 구문'을 생성하고 있으며,¹⁷⁾ (20가)는 명제문의 핵심분인 동사 '상하(다)'의 향가에 따라 선택된 명사구의 핵명사 '사과'의 논항에 [+한정성], [+특정성]의 의미기능을 하는 유표적 속격 명사구 '세 개의'를 선택한 구문이다.¹⁸⁾ 그리고 (20나)는 (20

17) 김영희가 제시한 (17)의 '기능 도르기'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18) 물론 (19가)의 핵심분인 '세 개'가 명사구의 명시소로 핵이동하여 유표적 속격 명사구 '세 개의 빨간 사과'가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명사구의 핵이동은

가)의 핵명사 선행요소인 ‘빨간’이 동사구(Vs')의 명시어 위치로 이동한 구조이다. 그러나 (20다)가 비문법적인 구문이 되는 것은 핵명사(N') ‘사과’의 지배영역에 있는 (20가)의 유표적 속격 명사구 ‘세 개의’가 명제문의 핵성분인 V'의 명시소로 이동하여 핵명사 ‘사과’의 분류사로 기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사구의 명시소가 동사구의 명시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러한 (19)와 (20)의 문장들을 동사구 이중구조로 제시하면 (21가), (21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가)에서 명사구의 핵성분(Nq')인 ‘세 개’는 Nq'의 지정어인 무표적 속격 명사구의 핵성분인 ‘사과’와 [대상-개체]의 의미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과’는 수량사구(세 개) 가운데 분류사 ‘개’가 전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개’는 ‘사과’의 잉여적 표현이다. 그리고 (21나)와 같이 핵명사 ‘사과’의 관계관형절 ‘빨간’은 동사구(Vs')의 명시소로 이동하여 ‘빨간 세 개의 사과’가 된다. 이러한 이동은 화용적 전제에 따라 핵명사의 [+한정성], [+특정성]의 의미를 지닌 속격 명사구가 주제화, 또는 제시어적 기능을 지닐 때 Vs'의 최대투영의 위치인 명시소로 이동한다. 즉 (21가)에서 Nq'의 지정어 ‘빨간 사과’가 동사구(Vs')에 대한 화용적

전제에 따라 Vs'의 최대투영인 명시어 위치로 이동하게 되며, 이때의 의미기능은 VPs인 '세 개가 상하(다)'에 대한 화용적 전제로 [+한정성], [+특정성]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20나)와 같은 명사구의 명시소 이동은 (20가)에서 N'(사과)의 지정어인 '빨간'이 화용적 전제에 따라 [+한정성], [+특정성]의 의미를 지닐 때 동사의 최대투영인 Vs'로 명시소 이동이 일어난다.

한편, 목적격 중출 구문도 주격중출 구문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보이는 '빨간 사과 세 개'와 '세 개의 빨간 사과'에 대한 통사 구조를 '명사구 이중구조'에 기대어 살펴보면 (22),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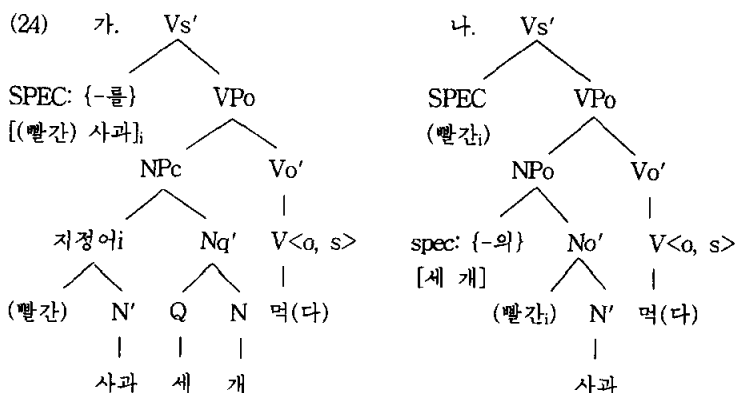
- (22) 가. 소현이는 [[[[빨간 사과]_{NP_K} [세 개]_{Nq'}]_{NP_o}를 [먹]_{Vo'}]_{VP_o}었다.
 나. *소현이는 [[[[빨간 사과]_i]_{spec}의 [e_i 세 개]_{NPC}]_{NP_o}를 [먹]_{Vo'}]_{VP_o}었다.
 다. 소현이는 [[([빨간 사과]_{iSPEC}를 [e_i 세 개]_{NPC}]_{NP_o}를 [먹]_{Vo'}]_{VP_o}었다.
 (23) 가. 소현이는 [[세 개의]_{spec} [(빨간 사과]_{NPC}]_{NP_o}를 [먹]_{Vo'}]_{VP_o}었다.
 나. *소현이는 [[[[세 개]_i [(빨간 사과]_{NPC}]_{NP_o}를 [먹]_{Vo'}]_{VP_o}었다.
 다. *소현이는 [[세 개]_{iSPEC}를 [(빨간 사과]_{NPC}]_{NP_o}를 [먹]_{Vo'}]_{VP_o}었다.

(22가)는 상위문 동사 '먹(다)'의 향가(Vo')에 따라 목적어 명사구의 핵성분인 핵명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분류사 '개'가 선택되어 어휘적 재구조화에 따라 N'인 '세 개'가 된다. 그러나 이 '세 개'는 상위문 동사 '먹(다)'의 향가인 [대상]의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적 보충어인 무표적 속격 명사구를 지정어(NPc) 위치에 요구하게 되며, 이때 동사와의 의미적 상관성에 따라 '사과'를 선택하여 '먹(다)'의 향가를 충족시켜서 (22가)의 수량 명사 구문을 생성한다. 그러나 (22나)에서는 핵성분 '세 개'가 [-개념성], [-대상성]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빨간 사과'가 Nq'의 명사소 위치로 이동한 '*빨간 사과의 세 개'는 명시소 이동이 제약되는 반면에, 상위문 동사(Vo')의 명시어 위치로 이동한 (22다)는 동사(Vo') '먹(다)'의 향가를 어기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이다. 즉 명사구(Nq')의 명시소(spec)로 이동하는 것은 상위문 동사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핵명사의 지배영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이

고, 동사구(Vo')의 명시소(SPEC)로 이동하는 것은 동사구(Vo')의 지배영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이다.

그리고 (23가)는 문장의 핵심분인 상위문 동사 '먹(다)'의 항가에 따른 논항 구조로 선행명사구의 핵심분인 '사과'를 선택하여 목적어 명사구의 핵심분으로 실현되며, 이 핵심분 '사과'는 NPc로 확장된다. 이때에는 상위문 동사 '먹(다)'의 항가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NPc의 선행요소인 유표적 속격 명사구(세 개의)를 선택하여 핵명사의 명시어(spec)로 실현된다. 그러나 (23나)의 '*세 개 빨간 사과'는 핵명사 '사과'만으로도 상위문 동사 '먹(다)'의 항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핵명사 '사과'의 지정어 위치에 이미 '빨간'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사 '세 개'가 지정어 위치에 올 수 없으며, (23다)에서는 '세 개를 빨간 사과를'이 비문법적인 것은 핵명사 '사과'의 명시어가 Vo'의 명시어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핵명사 '사과'의 지배영역에 있는 (23가)의 유표적 속격 명사구 '세 개의'가 명제문의 핵심분인 Vo'의 명시소로 이동하여 핵명사 '사과'의 분류사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명사의 명시어는 동사구의 명시소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위의 (22)와 (23)은 (24)와 같은 통사적 계층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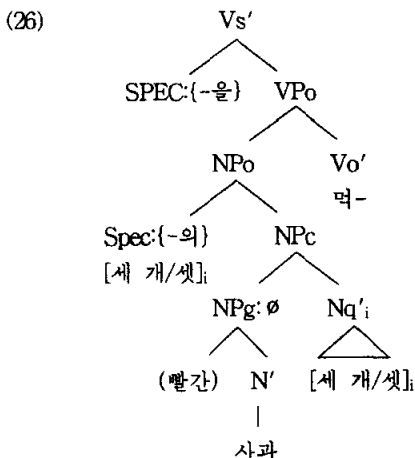


따라서 (22)~(24)의 논의를 종합하면, 동사의 항가에 따른 선행 명사구에서 핵명사의 지정어가 동사(구)의 명시어 위치로 이동하여 격중출

구문인 ‘빨간 사과를 세 개를’ 구문이나 ‘빨간 세 개의 사과’ 구문이 생성된다.

3.2.2 속격 명사구문: [핵명사(N')인 수량사 → 핵명사(N')의 명시어]

- (25) 가. 정은이는 [[[빨간 사과]_{NPg} [세 개/셋]_{Nq'}]_{NPo}을 [먹]_{Vo'}]_{VPo}었다.
 나. *정은이는 [[[세 개/셋]_i [빨간 사과] e]_{iNPo}를 [먹]_{Vo'}]_{VPo}었다.
 다. 정은이는 [[[[세 개/셋]_i]_{Spec}의 [빨간 사과 e]_{iNPc}]_{NPo}를 [먹]_{Vo'}]_{VPo}었다.
 라. *정은이는 [[[[세 개/셋]_i]_{SPEC}을 [[빨간 사과 e]_{iNPc}]_{NPo}를 [먹]_{Vo'}]_{VPo}었다.



(25가)에서 명사구의 핵성분(Nq')의 지정어 위치에 무표적 속격 명사구(NPg) ‘빨간 사과’가 이미 선택되어 있는 구문이고, (25나)는 (25가)의 지정어 위치에 이미 ‘빨간 사과’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핵성분(Nq') ‘세 개/셋’이 지정어 위치로 이동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했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며, (25다)는 핵명사의 최대 투영인 Nq'의 명시소(Spec)로 이동했기 때문에 문법적이다. 즉 Nq'인 ‘셋’은 화자의 의도인 [+한정성], [+특정성]에 따라 명시어 위치로 이동한 ‘셋의 빨간 사과’는 문법적이다. 혹시 ‘셋의 빨간 사과’가 청자에 따라 비문법적인 구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은 수량-분류사 구문인 ‘세 개’가 명시소 위치로 이동한 ‘세 개의 빨간 사과’가 언중들의 인식에 자리 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5라)는 명사구의 핵성분이 동사구(Vo')의 명시소 이

동하였기 때문이다. 즉 상위문 동사 ‘먹(다)’의 항가에 따른 핵성분은 ‘셋’이며, 이 ‘셋’은 명사 ‘사과’의 수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핵성분 ‘셋’은 동사 ‘먹(다)’의 항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내적 보충어로서 지정어인 ‘사과’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핵성분(Nq’)인 수량사구는 지정어 ‘사과’의 지배영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Vo’의 명시어 위치로 이동한 *셋을 빨간 사과를’은 비문법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수량사-명사 구문’과 ‘명사-수량사 구문’은 서로 다른 구조를 지닌 동의문이며, 이들의 변형은 오직 동사구와 명사구의 ‘명시소 이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으며, (2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7)

유 형	N+Q (사과 셋)	N+Q+Cl (사과 세 개)	Q+Cl+의+N (세 개의 사과)	Q+의+N (셋의 사과)
이 동				
NpC → SPEC	사과를 셋을	사과를 세 개를	*세 개를 사과를	*셋을 사과를
Nx' → spec	*사과의 셋 셋의 사과	*사과의 세 개 세 개의 사과	*사과의 세 개	*사과의 셋

4. 결 론

이 글에서는 ‘명사 + 수량사 + 분류사’와 ‘명사 + 수량사’, 그리고 ‘수량사 + 명사’와 ‘수량사 + 분류사 + {-의} + 명사’인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국어 수량 명사 구문’을 연구대상으로 했으며, 국어 수량 명사 구문의 문법 범주 설정과 이들의 통사 구조 및 통사적 특성인 명시소 이동과 제약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말의 일반적 명사구 구조인 ‘명사구의 이중구조’를 전제로 국어 수량 명사 구문의 핵성분은 분류사 D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서술기능을 할지라도 그 문법 범주는 서술어가 아니라 명사구임을 밝혔다. 그리고 국어 명제문의 통사 구조를 ‘명사구 이중구조’와 동일한 이중 구조

로 설정하여, ‘명사 + 수량사 (+분류사)’ 구문에서는 N’의 핵성분인 수량사(구)가 핵명사(N’)의 최대투영인 명사구의 명시소(spec) 위치로 이동하면 ‘[[수량사 (+분류사)] + {-의} + 명사]’ 구문이 생성되고, 핵명사(N’)의 내적 보충어인 지정어(NPc)가 동사구(Vx’)의 최대투영인 명시소(SPEC) 위치로 이동하면 ‘[NP + {-는/-를} + [수량사 (+분류사)] + {-가/-를}]’ 구문인 격중출문이 생성되는 현상과 이들의 제약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러한 명시소 이동과 제약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8)

유 형 이 동	N+Q (사과 셋)	N+Q+Cl (사과 세 개)	Q+Cl+의+N (세 개의 사과)	Q+의+N (셋의 사과)
NPc → SPEC	사과를 셋을	사과를 세 개를	*세 개를 사과를	*셋을 사과를
Nx' → spec	*사과의 셋 셋의 사과	*사과의 세 개 세 개의 사과	*사과의 세 개	*사과의 셋

위의 표에서는 ‘명사(N)-수량사(Q+Cl)’ 구문이 명사구의 명시소로 이동하면 ‘수량사-명사’ 구문인 유표적 속격 명사구가 되며, 동사구의 명시소로 이동하면 격중출 구문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명사-수량사’ 구문과 ‘수량사-명사’ 구문은 서로 통사 구조는 다르지만 의미 전달의 정보량에는 차이가 없는 동의문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형식주의적 통사 구조의 설정에 따른 검증 작업은 필자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할 과제임을 밝혀둔다.

주제어 : 수량 명사 구문(quantity noun-construction), 수량사(quantifier), 분류사(classifier), 명사구 이중구조(dual structure of noun phrase), 명시소 이동(spec-movement), 격중출문(case-dual sentence)

참고문헌

- 권재일(1996), 「국어 문법의 연구」, 박이정.
- 김광해(1990), 양화표현,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 김거화(1988), 국어의 격연구 -격 중출문과 주어 인상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연구」 14, 서강대.
- _____(1994), 「국어의 격연구」, 한국문화사.
- 김영근(1991), 관형절의 수량사 영역 현상, 「제명어문학」 6, 제명대.
- _____(2000), 「국어 수량사 연구」, 문창사.
- 김영희(1976), 한국어 수량화 구문의 분석, 「언어」 제1권 제2호, 한국언어학회.
- _____(1981), 부류 셈술말로서의 셈 가름말, 「배달말」 6, 배달말학회.
- _____(1982), 셈술말 읊기기, 「배달말」 7, 배달말학회.
- _____(1984),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탐출판사.
- 김지홍(1994), 수량사를 가진 명사구의 논항 구조, 「배달말」 19, 배달말학회.
- _____(1995), 명사구의 확장 그 논항 구조에 대하여, 「배달말」 20, 배달말학회.
- 김태엽(2001), 주격조사 '-이가'에 대하여, 「우리말글」 21, 우리말글학회.
- 노대규(1977), 한국어 수량사구의 문법, 「어문논집」 18,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 박호관(1995), 「현대국어 명사구의 구조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_____(2001), 국어 명사구의 통사 구조와 의미, 「언어과학연구」 19, 언어과학회.
- _____(2002), 「국어 명사구의 통사 구조와 의미」,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 _____(2002), 한국어 명사구의 이중구조와 명시소 이동,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 유동준(1983), 국어 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 이익섭(1973),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기능에 대하여, 「어학연구」 제9권 제1호, 서울대.
- 임흥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국어연구회, 서울대.
- _____(1974),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채 완(1982), 國語數量詞句의 通時的 考察 -語順變化의 一例로서-, 「진단학보」 53·54호, 진단학회.
- _____(1983), 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제19권 제1호, 서울대.
- _____(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 홍순성(1981),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에 대하여 -관형사류+명사류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8, 제명대.

Juhn, Hyung-Jin(1986), Quantifier Constructions and Logical Form, 「인천대학논
문집」 10, 인천대.

Yang, In-Seok(1972), 「Korean Syntax」, Seoul: Paekhapsa.

이 논문은 2003년 7월 25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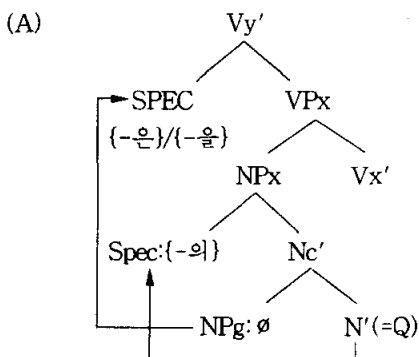
2003년 8월 22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The Syntactic Structure of Quantity Noun-construction in Korean

Park, Ho-gwan

[Abstract]

This thesis looked into 'quantity noun-construction structure in Korean' as the subject of study, showing 4 types: 'noun + quantifier + classifier' ; 'quantifier + noun' ; 'quantifier + classifier + {-ui(-의)} + noun', which is to analyze the syntactic structure and grammar category establishment of quantity noun syntax. For that, the researcher, setting forth 'dual structure of noun phrase', a typical one for noun phrase, as a premise, analyzed that the core element of quantity noun syntax is, not functional category D(classifier) or predicate, but noun(or rhetoric) as a type of noun phrase, then presented their syntactic structure as shown in (A),



And explained about the movement and restriction of the genitive noun phrase of quantity suffix within this frame, and defined 'syntactic structure of a propositional sentence' as the one having the same structure as dual structure of noun phrase, while dealing with the formation and restriction phenomena of 'case-dual sentence' such as dual subject sentence or dual object sentence.